

‘일인칭 복수’(FIRST PERSON PLURAL)

볼쉐이 가족

앨빈 볼쉐이(Alveen Borshay)

앨빈 볼쉐이는 미주리주 카터빌에서 출생하여 캔자스주의 캔자스 시티에서 자랐고, 그 곳에서 위안도트(Wyandotte) 고교를 졸업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946년에 아버지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로 이주했다. 오클랜드 공항 내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현재의 남편 아놀드 볼쉐이(Arnold Borshay)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. 볼쉐이 여사는 맨 밀의 두 아이를 기르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장로교 프리스쿨에서 공동교장을 지낸 바 있다.

아놀드 볼쉐이(Arnold Borshay)

아놀드 볼쉐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태어나, 근교인 알라메다에서 성장했다. 1960년에 가이액스 부동산(Gygax Realty)에 입사하여 주거용 부동산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. 1981년에는 가이액스 부동산의 소유주 및 중개인으로서 트라이 시티 지역에 3개의 지점을 가진 중견업체로 확장하기에 이른다. 계속 부동산 업계에서 종사하다가 1993년에 은퇴했다. 아놀드와 앤빈 부부는 슬하에 던컨, 드니스 그리고 디안 세 자녀를 두고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에서 거주해 왔다.

던컨 볼쉐이(Duncan Borshay)

던컨 볼쉐이는 프리몬트 소재 위싱턴 고교를 졸업한 뒤 20년 동안 개인 트럭 운수 회사인 볼쉐이 트러킹을 소유하여 운영해왔다. 1997년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금광 시굴에 뛰어들기 위해 은퇴했다. 던컨 볼쉐이는 딸 태미와 손자 안토니를 두고 있다.

드니스 볼쉐이 레본(Denise Borshay Lebon)

드니스 볼쉐이 레본은 역시 위싱턴 고교를 졸업한 뒤 지난 28년 동안 부동산 증서 보관업에 종사해왔다. 현재 프리몬트에서 증서 보관원으로 일하고 있으며, 두 아들 릭과 저스틴의 어머니이다.